

‘건축사’ 500호를 통해 얻는 교훈

Learning a good lesson from Magazine ‘Architect’ 500th edition

건축사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게재된 칼럼·기고·좌담 등을 프린트하여 읽고, 법제도·정체성과 윤리·현안·미래와 비전 등으로 분류하며, 꼭지마다 요점을 만들어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시작한 전철 속 독서는 하차 역을 한 두 곳 지나치기 일쑤였지만 그 양은 줄질 않았다. 지난 추석 연휴 9일간 큰택에 차례도 거르고 서재에서 ‘방콕’하면서 끝내려했으나 역부족, 나머지 4년분을 오늘에야 끝을 맺었다. 70일간, 요즘은 300쪽짜리 소설책 20권 분량에 해당하는 750쪽에 담긴 45년의 역사를 독파한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것은 창간 44년의 건축사지가 금년 12월로 500호를 맞게 됨에 따라, 특집의 일환으로 건축사협회와 건축사의 정체성과 윤리문제 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세든 선배에게 부탁했으나 예산 상 적게 책정된 원고료 때문에 거절당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 맡게 된 것은, ‘45년 전 선배들은 어떻게 협회를 이끌었고 어떤 문제로 고민했으며 어떻게 현안을 해결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는 예상보다 더욱 강렬하게 필자에게 다가왔다. 글을 접하면서 감복하고 아쉬워 무릎을 치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한 70일은 행복과 경이의 시간이었기에 원고청탁을 거절한 선배에게 감사하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역시 공자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다. 청탁이든 기고든 선배들의 글 속에는 현안의 해법과 예지 그리고 미래비전이 살아 있었다.

정인국 교수는 74년도에 이미 “향후 한국건축계는 조만간 업무량이 건축사의 수적 증가를 따르지 못하여 자연도태 현상이 크게 일어날 것”을 염려하며 “컴퓨터 디자인 등을 정신 차려 받아들이고 자신의 개성을 감안한 건축철학을 정립하는데 온힘을 경주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건축사들이 일의 폭주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이러한 경종을 울린 혜안이 부럽고, 이를 보고 몇 명이나 미래에 대비했는지 궁금하다.

김무언 건축사는 올해 부결된 통합문제를 이미 20년 전에 “동일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심지어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정부에 관철되지 않고 있다.”면서 용기를 갖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통합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97년 한창진, 2000년의 김한근, 조성룡 등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강기세 건축사는 94년도에 공제조합을 설립을 주창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이를 위한 토론회를 주창하고 있다. 결국 몇몇 회원의 극렬한 반대 주장에 부결된 것이 내년에 발족된다. 건축사의 노후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지난 45년을 건축사지를 읽으며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사실과, 사익을 위한 아집이나 편견 등이 얼마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별써부터 내년도 본협회장 출마자들이 6명씩이나 거론되고 있다.

공자님은 “옛것을 복습하여 새것을 아는 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건축사지를 복습하여 새것을 아는 이라면 대한건축사회의 회장이 될 만하다(溫故而知新 可以爲會長矣).” ㉠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본지 및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